

## 2. 중국 제9기 全人大 2차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주요 내용<sup>1)</sup>

사유재산권 보장 및 사유 기업의 활성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및 99년 기본 목표로서 내수 활성화와 국유기업·금융 개혁 추진

#### - 부분적 헌법 개정

- 주내용은 ▷非公有制經濟<sup>2)</sup>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부분으로 격상 ▷등소평 이론의 명시 등이나, 공유제 우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 유지는 명확히 함

#### <헌법 기정의 주요 내용>

조항	변경전	변경후
전문	-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	-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
전문	-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인도 하에	-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사상의 인도 하에
제5조 추가	-	-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
제11조	- 사영제도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모충	-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
제28조	- 반혁명 활동	-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활동

- 이번 개정의 목적은 사유제의 확대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사영 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데 있음
- 특히 사영 기업의 위상 격상은 ▷사영 기업의 불안감 해소 ▷엄청난 고용 창출 ▷세수원 확대 등의 효과를 가질 것임
- 지난 9일에는 외국인 투자 및 사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두 계약 도입 ▷내·외국인 계약 동등 대우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계약법안을 심의

#### - 98년 경제 성과와 99년 경제 목표 발표

- 경제 성장을 7.8%, 소비자 물가상승률 -0.8% 등 99년 성과는 타국에 비해 양호

1)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는 중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식 표결권 갖는 2,978명과 표결권 없는 2,263명 등 총 5,000명 이상의 인민대표가 참석함. 주요 권한은 ▲헌법 개정 ▲ 기본 법률의 제·개정 ▲ 국가 주석과 부주석 선출 ▲ 총리·부총리 임명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 승인 등인데, 대부분 공산당의 결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상설 기관인 상무위가 역할을 대신  
 2) 중국에서는 공유 경제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을 '非公有制經濟'로 총칭함. 비공유제 경제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외자 기업으로 구분됨. ▷個體經濟: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생산물도 개인이 가짐 ▷私營經濟: 개인이 직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형태 ▷外資企業: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독자, 합작 등의 형태를 띌 수 있음

- 한 편이나, 95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경향을 보임
- 3월 6일 會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8개 주요 목표를 발표

**<98년 실적과 99년 8기 주요 목표>**

구분	1998	1999
경제성장률	7.8%	7%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14.1%	12%
소매물가상승률	-2.6%	2% 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	0.8%	4% 내외
수출입 총액 무역수지	3,240억 달러 436억 달러	약간 증가 균형 도모
중앙 재정적자	980억 원	1,503억 원(56% 증가)
화폐 발행량	-	1,503억 여원
도시의 등록 실업률	3.1%	3.5%
인구 증가율	-	1.01%

**- 99년 경제 운영 계획(3.5 朱鎔基 총리 발표)**

- 지속적인 내수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시: 7%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확대 및 재정 적자 확대 불가피
- 농업과 농촌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 농촌 구조 조정 및 개선, 鄉鎮企業 구조 조정, 농민 부담 경감
- 국유기업 개혁의 강력 추진: 중복 건설의 저지, 下崗(정리해고) 인원의 재취업 등
- 금융 업무의 양호한 실행과 금융 위험의 완화
- 수출 및 외자 이용 확대: 수출 시장 다원화 전략, 수출 신용 대출 및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 99년 예산 초안 발표**

- 중앙 정부의 재정 수입은 5,886억 元, 지출은 7,389억 元으로 잡아 1,503억 元의 적자 예산을 편성함
-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의 3,891억 元보다 476억 元 적은 3,415억 元의 국내외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3월 1일 99년 제1기 국채 발행(총 500억 元) 발표)

□ 향후 전망

내구 소비재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의 내수 부양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영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 내수 부양책의 후속 조치 추진

- 민간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서는 ▲ 실질 이자율의 하락 유도 ▲ 정부 富(중앙·지방 정부의 통신, 에너지 등의 국유 산업과 토지 등)의 민간 이전을 통한 소비 증대 ▲ 농촌 시장의 확대 ▲ 주택 시장의 확대(주택 건설 투자의 확대) ▲ 사회 안전망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中國工商銀行은 최근 주택·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업무에 이어 내구소비재에 대한 대출 업무를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人民日報, 3월 3일 字)
- 특히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농촌 부문 경제의 활성화를 99년 중점 경제 목표로 두고 있어, 향후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발표될 것임(인민은행의 농업·농촌 대출 확대 지시, 中國經濟時報, 3월 2일 字)

- 사영 기업의 과감한 육성

- 이번 대회에서 헌법 개정과 통합계약법안 제정이 이루어지면, 향후 서비스 관련 업종 등 민영 기업 업종 다양화, 외국인 기업간의 합작 사업 활성화가 전망됨
- 후속 조치로 '사영기업법' 등이 제정되면, 사영 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의 공식적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 증가로 이어져 향후 민간 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동시에 사영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인원이나 신규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실업 감소 효과도 예상됨

- 국유기업 개혁의 지속적 추진

-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 및 특혜 대출의 단계적 폐지 ▷중소 국유기업의 다양한 경영 방식 추진(민간 매각, 개조, 연합, 임대, 청부 경영 등) ▷적자 국유기업의 합병 및 파산 유도 ▷주식제의 촉진을 통한 민영화 ▷인원 삭감에 의한 효율 향상 등을 추진할 것이나, 정부는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 국유기

- 업의 무분별한 매각은 최대한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국유기업 안정을 위해 일시적 국내 기업 보호 정책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로 정부의 국내 기업 카르텔 묵인, 쿼터 제한, 반덤핑 조치, 밀수 단속 강화 등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임

## □ 시사점

헌법 개정을 통한 사영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내수 부양에 발맞추어, 중국 대형 사영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전 준비나, 농촌 시장 및 건설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사영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비하여 대형 사영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향후 사영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도 철폐되며, 동시에 외국인 합작 투자도 가능함으로써 국유기업보다 경영 효율성이 뛰어난 사영기업과의 합작이나 제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내수 부양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활용**
  - 소비 확대의 핵심은 내수 소비재인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세탁기, 냉장고, 컬러 TV의 보급률이 22%, 8%, 27%에 불과하여 소비 잠재력이 상당함(經濟導報, 99년 1월 1일 字)
  - 농촌의 도시화 및 중국 정부의 농촌 소득 및 소비 증가 정책이 향후 추진될 것이며, 가전제품은 향후 20년 동안 고속 성장이 가능하고, 내구 소비재는 향후 최소 10여년 동안 중국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하반기에 우리 기업 가전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대가 예상됨
- **대규모 SOC 사업의 지속은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것임**
  - 향후 5년간 철도부의 철도 건설용 기계 설비 구입이 150억 元을 초과하고, 그중 건설 중장비 구입이 50억 元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계, 전자 공업의 발전이 예상됨

(황 동 언 hde@hri.co.kr ☎724-4055)